

JEC World 2025 참가, 수출마케팅 지원 나서

탄소소재 적용 기술 65만불 수출 계약 체결... 국내 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

한국탄소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경민)은 지난 4~6일 프랑스 파리에 개최된 'JEC World 2025'에 국내 탄소기업 12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하며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JEC World 2025는 전 세계 복합재 분야 신화연계자들이 1,350개 이상의 부스를 구성, 약 78,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복합소재 박람회로 탄소소재를 비롯해 여러 주요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복합소재 기술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국내기업 12개사(△국도화학(주), △(주)테크가본, △(주)대신테크, △(주)아이피에스 오토 등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고, 탄소섬유 단열재,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로보트 슈트, 수소저장용기, 그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4~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JEC World 2025'에 국내 탄소기업 12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하며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핀 응용제품 등 최첨단 탄소복합재 기술을 전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 한국관 참여 기업 중 4개 기업이 현

장에서 진행된 구매 상담을 통해 총 65만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이뤘는데, △(주)대신테크는 인조흑연·CNT 탄소소재를 활용 방열복합재, 전

자파이버 제품으로 23만불의 수출 계약을, △(주)에스컴텍은 28피트 세일링카터바 오토 제품으로 30만불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5일에 탄소소재 부품 기술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교류 행사인 'K-Carbon' 글로벌 파트너스 데이를 처음 개최하고,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의 정부관계자 및 탄소복합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과 탄소복합재 기술 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또한 독일 작센주 섬유연구소와 탄소복합재 기술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기업 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 인재 및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함께하기로 하는 등 국내 탄소소재 부품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농협은 지난달 28일 전주농협 본점서 하양진 전주시지부장, 대의원, 임·직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기 결산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53기 결산정기총회' 개최

전주농협, 하양진 전주시지부장 등 160여명 참석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지난달 28일 전주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하양진 전주시지부장, 대의원, 임·직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기 결산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비상임이사)선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형수 노영관, 이원일, 임석진, 신순주, 신동선, 이정표, 박길종, 안흥열, 임채경, 이경자, 서금숙 등 12명의 임원이 당선되었으며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4년간이다. 또한 결산보고서 등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의결 통과했다.

또한 총회에서 전주농협 우수 조합원, 우수직원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전주농협은 2024년도 결산 결과 예수금 1조7,960억 원, 매출금 1조4,236억 원으로 상호금융 사업량 3조2,198억 원, 경제사업 매출은 1,304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

업비 88억 원을 집행하고도 2024년 당기순이익 56억 원을 실현하였다. 한편 전주농협에서 전국최초로 시행하여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 경영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있는 농사연금금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219억 원을 지급하였다.

임인규 조합장은 "이 모든 것은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전임 임·직원이 노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조합원들의 신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선출된 비상임이사들과 함께 조합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농협은 이번 총회를 통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속에서 조합원들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업인 중심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만호기자

전북농협, 영농기 맞아 농기계 순회수리 안전점검 실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과 부안중앙농협(조합장 신정식)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6일부터 7일까지 관내 농업인이 보유한 농기계를 대상으로 무상수리 및 정비점검 순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수리 봉사는 전북농협농기계기술자협의회(회장 허재용)와 농협 호남지제유봉센터, 농기계 생산업체(TYM, 대동공업(주), IS엠트론(주)아세아텍(유)삼정기계) 정비요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 200여 대를 무상으로 점검·수리해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줬다.

또한, 자가 정비능력이 낮은 농업인들에게 간단한 수리 기술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지도해 자체수리 능력을 높이고 점검 및 보관·관리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정식 부안중앙농협조합장은 "이번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과 안전한 농업에 큰 힘이 되어 올해 풍년농사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영농 편의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농기계 순회 및 점검이 필요한 농업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순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기자

전주 농산물 가공식품 뉴질랜드 공략 나서

뉴질랜드 현지서 '전주 농산물 가공식품 뉴질랜드 사업주 초청 상품설명회' 개최

전주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식품이 뉴질랜드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재오클랜드한인회(회장 홍승필)와 공동으로 전주 농산물 가공식품 뉴질랜드 사업주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1일 오클랜드 노스쇼어 알버니 한식당 내비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송영진 전주시의원, 오클랜드한인회 임원,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나인철), 현지 언론사, 현지 유명 한식당 대표자 등 40여 명이 참석, 전주시 농산물 가공식품의 오클랜드 수출을 위한 상품설명회와 상담이 약



4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센터는 식전 메뉴로 현지 누룽지, 식후 디저트로 전주 배로 만든 시식을 준비해 선보였다.

또한 지역관광추진조직인 전주DMO가 지역 청년 창업가 옛촌장(대표 정경운)의 김치찌개 식사 메뉴로 제공 하는 등 입으로 직접 맛보는 방식의 상품설명회가 연출돼 참석자들의 호

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의 주요 성과로 오클랜드 최대 규모의 소규모 커머셜 베이의 가장 중심에 새롭게 선보이는 한식당 기사(KISA)의 장원철 셰프가 이달 중전주시농업기술센터와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시 식재료 활용 신메뉴 개발과 지역 대학 조리학과 학생의 해외 취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강세권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K-Culture의 중심에 한식 그리고 한식의 중심에 전주의 수준 높은 농산물 가공식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LX공간정보연구원, '지적과 국토정보' 논문 모집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원장 박희도)이 지적과 공간정보분야 발전을 견인할 논문을 모집한다.



LX공간정보연구원은 5월부터 KCI등재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제390호 제55권 1호에 게재할 2025년 상반기 논문을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LX공간정보연구원이 발행하고 있는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는 공간정보와 지적분야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창간했다. 매년 2회 발간되고 있는 '지적과 국토정보'는 2014년에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학술

지로 선정되며 지적·공간정보 전문 학술지로서 권위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적과 국토정보'는 연구활동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학술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논문 투고료, 심사료, 게재료는 일체 받지 않는다. 또한 논문게재가 확정된 우수 원고를 대상으로 소정의 학술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희도 원장은 "지적과 국토정보는 지적·공간정보분야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 학술지이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북은행, 워크스메이트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주)워크스메이트(대표 김세원)와 '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워크스메이트는 건설 노동자 비대면 인력 중개 플랫폼인 '가다'를 운영 중인 인력 앞선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전북은행은 워크스메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건설 인력시장에서 지적되던 정보 불균형 해소 및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의 금융 혜택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은행이 최근 성장 중인 '직(職)이코노미' 시장 진입을 고려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근로

자를 우선 타깃 고객으로 설정했고 워크스메이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 근로자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 △건설 근로자 임금 선지급 서비스 활성화 △의국인 건설 근로자 대상 신규 비즈니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건설 시장의 노동 수요불일치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워크스메이트와 같은 플랫폼 기업의 등장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워크스메이트와의 협업을 통해 성장하는 직(職)이코노미 시장에서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